

발행인: 엄재일

편집인: 이한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3년 9월 16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한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51

e-mail: hanjung@skku.edu

1. 월례 논문 발표회 및 강독회

- ▶ 이번 학기 첫 월례 논문 발표회가 9월 28일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최윤희 선생님(서울대), 윤홍옥 선생님(건국대)과 김석훈 선생님(서강대)의 기획논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후 식사에 이어 강독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독회는 윤영은 선생님(이화여대)께서 ‘영어와 한국어의 현재완료 (English and Korean Present Perfect)’를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강독 논문은 본 소식지와 함께 배포해 드리며, 강독회와 월례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또는 강독회에서 다루고자 희망하시는 주제 또는 논문이 있거나,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면 연구이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발표회: 유은정 (ejyoo@snu.ac.kr), 전영철 (ycjun@snu.ac.kr), 양정석 (yjsyang@yonsei.ac.kr), 최승권 (choisk@etri.re.kr)

강독회: 김종복 (jongbokkim@gmail.com), 위혜경 (hkwee@dankook.ac.kr), 정소우 (swchung@sungshin.ac.kr)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75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3년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7권 2호 (2013년 12월 31일 발간): 2013년 10월 15일 원고 마감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 연회비로 3만원을 납부하시고, 내년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3년도 회비 납부 현황

-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용(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 정회원: 강상구(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김미숙(상지대), 엄재일(홍익대), 이기황(다음소프트), 이영주(서울여대), 이용훈(충남대), 이은미(동신대), 이정민(서울대), 임동식(홍익대), 장석진(서울대), 정영한(인하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승권(ETRI), 최윤희(서울대), 홍민표(명지대)
- ▶ 준회원: 구현모(충남대), 김송희(서울대), 박은영(충남대), 송지나(서울대), 윤지현(충남대), 한희우(충남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회원등정

- ▶ 이익환 회원님(상명대 석좌교수)께서 저서 『영어 결과문의 사건의미론적 분석 및 응용』을(한국문화사) 발간하셨습니다. 사건의미론을 바탕으로 영어 결과문의 의미표현을 논리형태로 나타내어 분석 방법을 영어 이동 동사 구문의 의미구조 분석에 확대 적용한 저서입니다.
- ▶ 윤영은 회원님(이화여대)께서 『언어의 의미 및 화용 이론과 실제』를(한국문화사) 발간하셨습니다. 언어의미 체계를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주요 이론, 또 실제 분석 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한 저서로, 의미론의 큰 두 연구 줄기인 형식 의미론과 인지 의미론적 접근법을 균형 있게 소개하면서 의미론의 발달과 함께 발달해온 주요 형식 의미론과 인지 언어학 이론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 저서를 발간하신 두 회원님께 축하 드립니다. 공유하실 회원님들의 소식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 이번 학기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에서 열립니다.
-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왼쪽으로 돌아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 9월 28일과 11월 23일: 제1캠퍼스 진리관 212호에서 열립니다 (아래 지도 4번). 정문에서 (10번) 학생회관과 (8번) 행정관을(7번) 지나 왼쪽으로 돌아가다가 새힘관 (6번)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문에서 3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 ▶12월 14일: 제1캠퍼스 순현관 322호 (1번). 정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 ▶ 9월 28일 월례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2-3692)에서 있습니다.

7. 학술대회 안내

- ▶ [CFP] The 24TH Meeting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in the Netherlands (CLIN 2014)
 - 일시: 2014년 1월 17일
 - 장소: Leiden, the Netherlands
 - 사이트: <http://clin24.inl.nl>
 - 초록마감: 2013년 11월 15일
- ▶ [CFP] Approaches to Information Structure (Session of Linguistic Evidence 2014: Empirical,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 일시: 2014년 2월 13~15일
 - 장소: Tübingen, Germany
 - 사이트: <http://www.sfb833.uni-tuebingen.de/LE2014>
 - 초록마감: 2013년 10월 13일
- ▶ [CFP] The 2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APCLC 2014)
 - 일시: 2014년 3월 7~9일
 - 장소: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 사이트: <http://www.engl.polyu.edu.hk/events/apclc2014>
 - 초록마감: 2013년 10월 25일

한국언어정보학회 2013학년도 9월 월례회 일정표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 일시: 9월 28일 9:30 – 13:00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30 10:30	기획	최윤희 (서울대)	한국어에서 자유선택어와 부정극어의 구조와 이해	최승권 (ETRI)
Coffee Break (15분)				
10:45 11:45	기획	윤홍욱 (건국대)	The role of verb argument information during online sentence comprehension: Testing instrument role in English	
Coffee Break (15분)				
12:00 13:00	기획	김석훈 (서강대)	A Corpus-based analysis of discourse anaphora in English and Korean: A Neo-Gricean pragmatic approach	

한국언어정보학회 2013학년도 6월 강독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 일시: 9월 28일 15:00 – 16:30
주제: 영어와 한국어의 현재완료 (English and Korean Present Perfect)

발표자	윤영은 (이화여대)
논문	Mittwoch, Anita. 2008. The English Resultative perfect and its relationship to the Experiential perfect and the simple past tense. <i>Linguistics and Philosophy</i> 31, 323-351. Schaden, Gerhard. 2009. Present perfects compete. <i>Linguistics and Philosophy</i> 32, 115-141.

2013년 9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기획논문>

한국어의 자유선택어와 부정극어의 구조와 이해

최윤희 (서울대)

In this talk, I will deal with two issues. First, I identify the essential property of FCIs/NPIs. Second, I discover key components of FCIs and NPIs in Korean, and also show how free choiceness or polarity sensitivity is generated.

To identify the essential property of FCIs/NPIs, I adopt Jayez and Tovenà (2005a; 2008)'s proposal that FCIs have an essential property, i.e., 'equity', which arises from 'no loser' and 'no winner' constraints. No loser says that for every member in the domain, there is at least one world where it is imposed. No winner says that for every member in the domain, no member is imposed in every world. In short, equity can be defined as a 'modal equivalence'. However, since equity is originally proposed to account for FCIs but not NPIs, it cannot provide a unified analysis of FCIs and NPIs. The reason that equity cannot account for NPIs is that while equity always concerns possible worlds, i.e., modals, NPIs can occur in DE contexts which are not modal contexts. Still, it is possible to consider cases where all the elements in the domain are treated 'equally' by being assigned to be false in the actual world. I propose that this reading should be a special case of equity. The reading is special because it is stronger than the original equity in that all elements in the domain are treated in the same way in a 'local' situation, i.e., the actual world, whereas the original equity treats all elements in the domain in the same way in 'global' situations, i.e., possible worlds. For this reason, I will call this special case of equity 'strong equity'. Strong equity is defined as 'all members in the domain are not imposed in the actual world' or as 'there is no member in the domain'. By adding strong equity, we can satisfactorily deal with both FCIs/NPIs within the framework of equity. Our notion also provides the typology of FCI and NPI. I argue that FCIs are subject to equity whereas NPIs are subject to strong equity.

To investigate the second issue, I scrutinize forms of FCIs and NPIs in Korean. Korean FCIs and NPIs are composed of one of the two indefinites *wh*-phrases or *amwu*-(N), and one of the four particles, i.e., *-na* 'disjunction *or*. subjunctive component', *-tunci* 'post-verbal morpheme *-te* +question complementizer', *-to* 'and.even' and *-lato* 'declarative marker + and.even'.

I argue that the role of the indefinite is to build 'alternatives' in the domain based on Kratzer and Shimoyama-style Hamblin semantics. However, I show that the determiner *amwu*- cannot be accounted for by Hamblin semantics, and propose that the determiner *amwu*- is a type-shift operator of type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Namely, *amwu*-N is of predicate type $\langle e, t \rangle$. (the pronoun *amwu*- is of type $\langle e, t \rangle$ by itself) (partee 1986, Chierchia 1998). I assume that *amwu*-(N) can generate only propositional alternatives in combination with a hidden copula *-i* located in front of the particle *-na* or *-lato*. I assume that the predicate of the form *be amwu*-(N) can be viewed as subjectless proposition, where the subject is accommodated from the context. A similar idea is given in Chungmin Lee (1999) where *wh*-/*amwu*-(N)-*lato* are analyzed as a clause which takes a phantom-like subject *ku kes* 'the thing'.

On the other hand, each particle holds a component which induces an exhaustive inference. The exhaustive inference means that 'every alternative in the domain is a possible candidate'. For instance, the particle *-na* contains a disjunctive component, the particle *-tunci* contains a question complementizer *-nci*, and the two particles *-to* and *-lato* contain a conjunctive component *-to*. In addition, the particles *-na* and *-*

tunci contain modal components, i.e., a subjunctive marker in *-na* and a modal marker *-te* in *-tunci*. The modal components in these particles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at FCIs built with the particle *-na* or *-tunci* can satisfy equity like English *ever-free* relatives. In contrast, the particles *-to* and *-lato* do not have a modal component. Therefore, in order for the items built with the particles *-to* and *-lato* to satisfy equity, they should interact with a sentential operator.

In the end, I will discuss the derogatory reading of *amwu-(N)-na*, and the concessive reading of *wh-/amwu-(N)-lato*.

Selected References

- Chierchia, Gennaro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 Dayal, Veneeta (1995) Quantification in Correlatives. E. Bach, E. Jelinek, A. Kratzer and B.H. Partee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s*, 179-205.
- Farkas, Donka (2002) Specificity Distinctions. in *Journal of Semantics* 19: 1-31.
- Jayez, Jacques and Lucia Tovenà, Tovenà (2005) Free choiceness and Non-Individu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8: 1-71.
- Jayez, Jacques and Lucia Tovenà (2008) Evidentiality and Determination.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271-286.
- Kratzer, Angelika and Junko Shimoyama (2002) Indeterminate Pronouns: The view from Japanese. In Otsu, Y. (eds.), *Proceedings of the Third Tokyo Conference on Psycholinguistics*. Tokyo: Hituzi Syobo, 1-25.
- Lee, Chungmin (1999) Type s of NPIs and Nonveridicality in Korean and Other Languages. *UCL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3.
- Partee, Barbara H. (1986) Noun Phrase Interpretation and Type-shifting Principles". J. Groenendijk, D. de Jongh and M. Stokhof (eds), *Studie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115-43.

<기획논문>

The Role of Verb Argument Information during Online Sentence Comprehension: Testing Instrument Role in English

윤홍욱 (건국대)

This talk aims to present psychological evidence showing that readers actively use the verb argument information during online sentence comprehension. For this aim, I introduce a series of experimental studies in which the processing difficulty of instrument roles was examined when the use of instruments was required in the events described by verbs like *jab* (i.e., obligatory instrument verbs) and when the use of instruments was not required but permitted in the events described by verbs like *attack* (i.e., optional instrument verbs) (Koenig et al., 2003). Example sentences shown in (1a) and (2a) refer to the cases where obligatory instrument verbs are used, whereas example sentences shown in (1b) and (2b) indicate the cases where optional instrument verbs are used.

(1a) What type of spear | did the pygmies | *jab* | the angry lion | with | in the documentary?

(1b) What type of spear | did the pygmies | *attack* | the angry lion | with | in the documentary?

(2a) The aborigine | *jabbed* | the angry lion | with | a spear | near | its prey.

(2b) The aborigine | *attacked* | the angry lion | with | a spear | near | its prey.

My hypothesis is that if the instrument argument information encoded by verbs plays a facilitatory role in sentence comprehension, the instrument nouns would be read more easily (faster) when they occur in

the contexts that obligatory instrument verbs are presented than when they appear in the contexts that optional instrument verbs are presented.

In the talk, I will present the results from wh-filler gap studies using sentences like (1a-b) and studies using active declarative sentences like (2a-b). The results from these studies supported my hypothesis. I will discuss that the effect of instrument verb argument information is independent in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ng instrument roles into sentences, even when the predictability and semantic similarity associated with instrument nouns are taken into account.

Selected References

Koenig, J-P., Maurer, G., & Bienvenue, B. (2003). Arguments for adjuncts. *Cognition*, Vol., 89 (2), 67-103.

<기획논문>

A Corpus-based Analysis of Discourse Anaphora in English and Korean: A Neo-Gricean Pragmatic Approach

김석훈 (서강대)

This research explores discourse anaphora in English and Korean by using a neo-Gricean pragmatic approach with corpus-based data in a hypothetico-deductive way. Very little study of Korean discourse anaphora has yet taken place at the inter-sentential level, except works looking at zero anaphor and a logophoric reflexive pronoun *caki* 'self'. This research fills this gap by examining two types of discourse anaphora at the discourse level: discourse anaphoric patterns (by order of mention of the referent and by placement of the paragraph) and sentential anaphors.

Two quantitative methods were adopted to verify the distribution and the selection of anaphora: natural data collection and a survey. First, samples of 30,000 running words from newspaper articles (for discourse anaphoric patterns) and the same size of samples from drama scripts (for sentential anaphors) in each language were investigated for each issue. Second, 20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20 native speakers of Korean were recruited to take part in two sets of a threefold acceptability survey for two types of discourse anaphora.

Based on the finding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signaling the appropriateness of different anaphors are qualitatively discussed within four relevant theories: topic continuity theory, hierarchy theory, cognitive theory, and principled neo-Gricean theory. First, discourse anaphoric patterns are examined in two respects: by order of mention of the referent and by placement of the paragraph. For both mention types, it is argued that there are general vs. sequential chains of anaphoric patterns: the first type forms a general chain with <full name, single name, pronoun> in both languages, whereas the second type forms a sequential chain with <full name, full name, full name>, notably in Korean. Second, referential properties of sentential anaphora are accounted for in terms of degree of anaphoricity in two languages. Lastly, it is argued that discourse anaphora in both languages can be more comprehensively accounted for through the use of neo-Gricean heuristics.

Selected References

Ariel, Mira. 1994. Interpreting anaphoric expressions: a cognitive versus a pragmatic approach. *Journal of Linguistics* 30(1). 3-42.

Givón, Talmy. 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n introduction.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ed. by Tamly Givón, 1-42. Amsterdam: John Benjamin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by P. Cole and J. Morgan,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Gundel, Jeneatte K., Hedberg, Nancy, and Zacharski, Ron.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 (2). 274-307.
- Horn, Laurence R. 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ang, Yan. 2000. *Anaphora: a cross-linguistic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Hye-Kyung. 2010. Referring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political news. *Journal of Pragmatics* 42. 2506-2518.
- Lee, Sungbom. 2005. *Understanding English referring expressions: a cognitive and pragmatic approach (in Korean)*. Seoul: Boobooks.
- Levinson, Stephen C.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 MIT Press.